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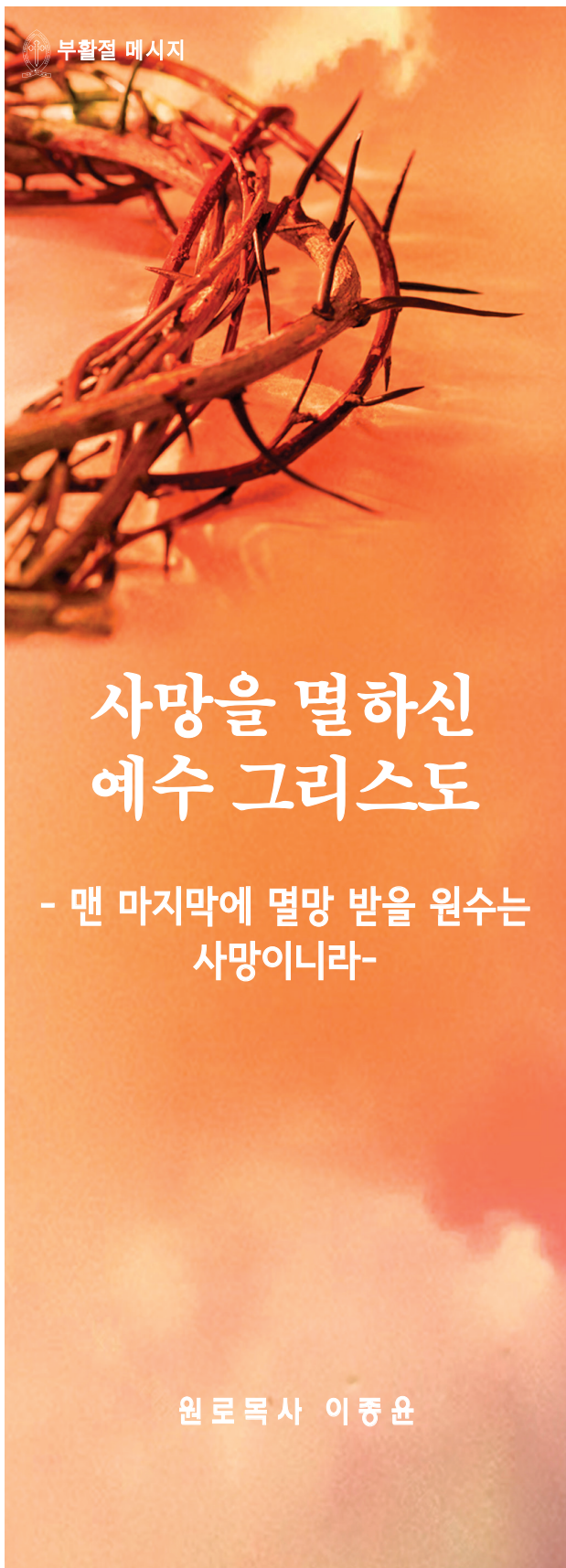
§ 2020년 표어 §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느 2:17, 엡 5:26-27)

十행 동지침十

- 1. 약속의 말씀 위에 갠신되는 서울교회
- 2. 믿음의 계대 이루어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교회
- 3. 성경 권위와 충분성을 믿고 개인, 가정, 사회의 변혁을 이루는 주님의 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iseoulchurch.or.kr



부활절 메시지

# 사망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 맨 마지막에 멸망 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원로목사 이종윤

오늘 아침, 우리는 한 위대한 힘 앞에서 있습니다. 그 분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다 찾아다니시는 분입니다. 동서고금, 춘하추동, 밤낮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그 분의 위대한 힘 앞에서 우리는 옷깃을 여미고, 흔히 산 설교를 듣기도 합니다. 많은 유명한 설교자들이 주지 못하는 큰 감화력을 갖고 있어 그 앞에 목석 같은 사람도 마음이 뜨겁게 녹아지고, 평소에 눈물 한 번 없던 영웅호걸도 그 분 앞에서 날엔 후회와 분노와 억울한 눈물을 터트리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 분이 누구일까요? 어느 위대한 스승의 말씀보다 확실하고 과학의 힘으로도 그의 위력에 대결할 수 없는 그 분의 이름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왕 중 왕, 주의 주 되신 예수님이실까요? 아닙니다. 그 위대한 힘의 이름은 '사망'입니다. 죽음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사망은 가족을, 친구를 우리의 품에서 빼앗아 가며 그래서 산 자들의 멸망 받을 원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크게 이기셨으며, 사망의 두려움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해 주셨고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셨습니다(딤후 1:10).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엡 2:1)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므로 아무도 불로장생 할 수 없으며, 큰 나라의 군주라도 사망을 매수할 재물이나 힘이 없고 그도 무덤으로 내려갑니다(창 3:19). 사망은 우리 중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원수입니다. 전에는 원죄로 인해 사망이 기다렸고 우리는 거룩하고 영적인 것들에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우리도 새로운 생명으로 되살리셨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고후 5:17). 이런 의미에서 사망이 정복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그가 모든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사망의 형벌을 당하셨으며 그러므로 어떠한 신자도 이제 죄에 대한 형벌로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사망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더 이상 형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사망을 폐하셨으므로 "사망이 쓰는 것은 죄요"(고전 15:56) 사망은 죄를 표적 삼는데 그 죄는 대속자께서 그의 죽으심으로 그 썩의 표적을 없애 주셨기 때문에 사망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머무르지만 거의 해를 끼치지 못하고 무덤은 텅 빈 지하실이나 음산한 납골당이 아니라 휴식의 방이며, 주님께서 준비하신 잠시 머물 여인숙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확실한 만큼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영광스런 부활에 동참하고 생명으로 부활할 것을 확실히 보증하셨습니다. 이 점에서 사망은 정복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을 성도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의 기념비적 승리 이후에 그는 사망을 매일 정복하고 계십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시지 못했을 것이고 그가 살지 못했다면 우리 믿음은 헛것이 될 뿐만 아니라, 순교자의 죽음도 불쌍한 자로 전락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시어 그 안에 있는 모든 이의 부활을 확실하게 보증하셨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 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고전 15:26). 사망이 원수지만 다른 대적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탄과 죄입니다. 그러나 사망이 없다면 죽어 가는 이가 사망 앞에서 덧없는 장난감들 위해 살아야 했던 것을 깨우치거나, 신령한 지혜에 대해 엄숙하게 설교를 듣거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정적 사랑(순교)을 나타낼 기회를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지라도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할 것입니다. 사망이 성도들을 똑바로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사망은 아직 멸망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진리가 거짓을 반드시 이기고 선이 악보다 강하며 사랑이 미움을 이기고 생명이 죽음을 영원히 이긴다는 진리를 확신시켜 줍니다. 우리 모두는 마지막 원수가 멸망되고 영원한 승리를 하신 그 분께 존귀, 영광, 위엄, 능력, 권세의 힘을 영원히, 영원히 돌립니다.

아멘.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뵈오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막 16:5-8)

##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한 I·II·III·IV 부 부활절 예배  
 성찬식은 거행하지 않음  
 찬양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은 죄인 되어 도무지 희망이 없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셨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로 지키며 마땅히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부활의 주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려야 하나 현재의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으로 볼 때 예년과 같은 형태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방역당국의 지침을 최대한 수용하는 범위 내에서 교회에서의 예배를 진행하되 성도간 거리를 두기 위해서는 일시에 많은 성도들이 예배당에 입장할 수 없으므로 본래의 주일 1, 2, 3부 이외에 임시로 오후 4시에 4부 예배를 신설하여 드립니다.

이미 지난 주 교구위원회(위원장 : 오광환 장로)는 각 교구를 통하여 교회 예배 참석을 원하는 숫자를 예배 시간별로 파악하여 분산, 조정한 후 개별적

으로 참석하실 예배를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주님의 삶과 피를 기념하기 위해 성찬식을 거행하여야 하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로는 모일 수 없어 성찬식은 거행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약 백여 명 참석할 수 있을 정도로 장소가 협소하여 주일학교 학생을 둔 학부모들과 감염에 취약한 연로하신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가정들은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발열이나 호흡기질환 증후가 있는 분 또는 최근 2주 이내 해외를 다녀오신 가족이 있는 성도님들은 교회예배 참여를 적극 자제해 주시고 대신 온라인 예배를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 건강 잘 돌보시며 현 사태가 조속히 진정되어 교회에서 온 성도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4월 정기당회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전도와 구제 사역

지난 4월 8일 개최된 정기당회에서는 2/4분기 추가 섬김위원을 임명하고, 아울러 인도 우상식 선교사의 교육시설 증축비 일부와 방글라데시 Subroto Baroi 목사의 코로나19 사태로 도시가 봉쇄되어 굶주림의 위기에 처해 있는 현지 교인들을 위한 긴급구제 요청에 대한 지원결의를 하였습니다.

그 이외에도 해외 선교사 2명 추가 선정과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 가정 선교를

하고 있는 두 기관에 대한 후원 안건 및 농어촌 미자립교회 두 곳에 대한 지원도 결의하였습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선교와 전도와 구제는 결코 늦추거나 외면할 수 없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므로 앞으로도 여건이 허락되는 한 그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나갈 것입니다. 성도들의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과 후원 바랍니다.

## 2/4분기 추가임명

- 예배위원회
  - 1부 헌금위원 : 라지용
  - 2부 헌금위원 : 김정두
- 찬양위원회
  - 가브리엘찬양대 : 김도은
- 교육위원회
  - 유치부 : 조현정
  - 중등부 : 부감 함정희 / 교사 손영희
- 청년2부 : 부감 김정제
- 영어예배부 : 부감 장애순
- 사랑부 : 박지원4
- 교구위원회
  - 4교구 간사 : 곽태수
- 군선교도교 : 팀원 강은경 남영주 이옥수
- 상담부 : 법률 김영표



## 교회 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윤요섭·안재희 유명종·이형희 성춘모·정희자 안홍희·전화진 (다음 주 계속)  
 \* 기부금 입금 계좌 : 신한 110-481-143925 노문환 (서울교회장로회)

## 현금을 온라인계좌로 입금하시는 성도님들께 안내드립니다

현금입력 및 기부금 영수증 발행 시 착오가 없도록 입금하실 때 성명과 현금명목을 정확히 기재하신 후 입금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자가 6~7자가 입력되는 관계로 다음과 같이 기재하시면 됩니다. 현금계좌는 교회에 문의 바랍니다.

예) 홍길동십일조 / 홍길동선교  
 홍길동주일 / 홍길동비전  
 홍길동지원교회 / 홍길동특별

## 부활절 감사 그림그리기·글짓기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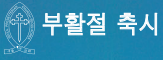
지난 주 교육위원회(위원장 : 이계홍 장로)는 2020년 부활절을 맞아 부활절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글과 그림을 유치·유년·초등·중·고등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였습니다.

짧은 1주일 기간임에도 총 46명이 참여하여 48점의 작품이 모였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드리며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소정의 상품을 증정하겠습니다.

- 유치부: 9점
- 유년부: 17점
- 초등부: 16점
- 중등부: 5점
- 고등부: 1점

총 : 48점



# 내가 그나라

신동기 권사 (12교구)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내가 그나라

그는  
창에 찢리고  
채찍으로 맞고  
대못에 박히며...

어떻게 당신은  
저들을 용서 할 수 있었습니까

세상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 높이 달리시어  
마지막 쏟아내는  
붉디 붉은 피...

어떻게 당신은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습니까

하늘이 내려와  
휘장이 찢어지고  
죽음으로 죽음을 이긴  
영원한 생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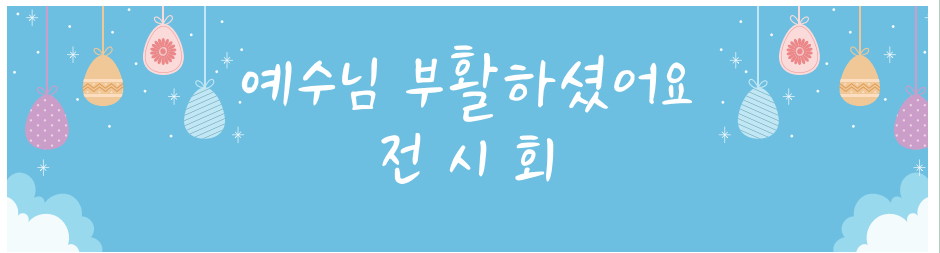
십자가  
커다랗게 벌린 두 팔  
오른편 강도의 낙원을 허락하시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보라 네 어머니라...

어떻게 당신은  
그 팔에 만민을 안을 수  
있었습니까

텔레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  
빛이 폭포처럼 쏟아지는  
영광의 부활 아침!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여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사랑하는 친구 지훈이에게

지훈아 안녕? 나 하율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 너도 나처럼 예수님을 잘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리고 천국에 가서 같이 놀자 안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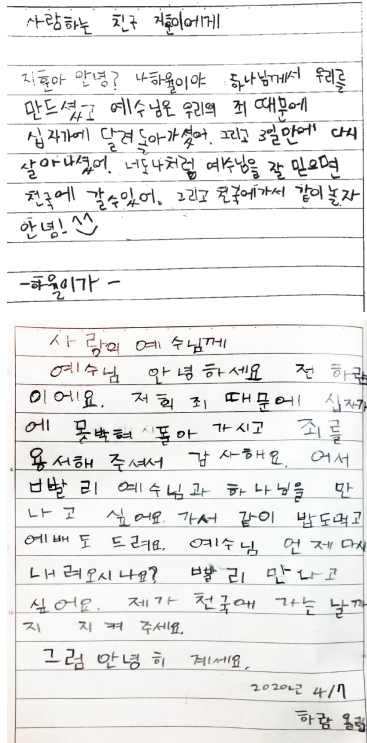
임하율 (유·초등부)

사랑의 예수님께

예수님 안녕하세요. 전 하람이에요. 저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서 빨리 예수님과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가서 같이 밥도 먹고 예배도 드려요. 예수님 언제 다시 내려오시나요? 빨리 만나고 싶어요. 제가 천국에 가는 날까지 지켜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임하람 (유·초등부)



##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한예준 (중등부)

그것을 믿으며 가네

...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

보통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 그냥 기독교의 상징? 정도로만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돌아가시기도 한 곳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 먼저 찬양 '예수의 피를 힘입어'라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해 보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가야할까?  
나를 구원할 주의 십자가

이시우 (초등부 5)

예수님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저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돌아오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돌아오셔서 너무 기쁩니다. 교회를 가서 글을 쓰진 못하지만 받아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도 친구들을 특히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해 알려줄 거예요.

사랑해요 예수님.



노윤 (유·초등부)

순례자



권도영 (유·초등부)



김수아 (유·초등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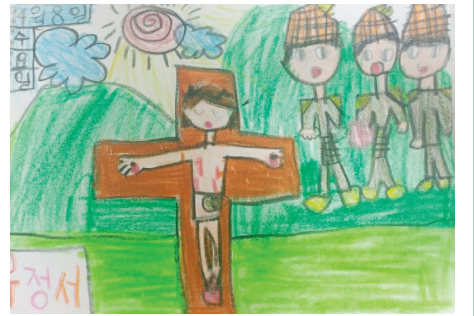
김하윤 (유·초등부)



김하진 (유·초등부)



노준 (유·초등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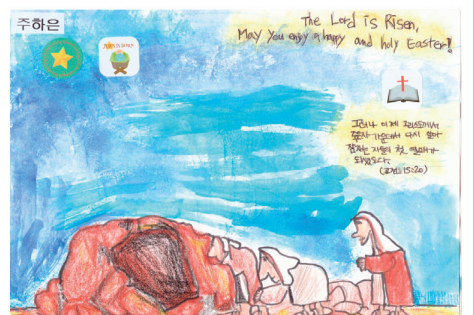
우정서 (유·초등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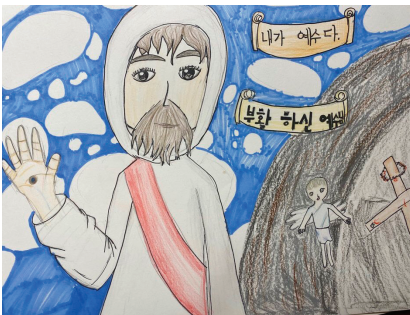
오선아 (유·초등부)



최무진 (유·초등부) 예수님이 사라졌다!



주하은 (유·초등부)



오승아 (유·초등부)



최무건 (유치부)



최지성 (유·초등부)



주하연 (유·초등부)



윤서진 (유·초등부)



유하연 (유·초등부)



만민에게 전도 - 인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전 세계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충격과 공포에 몸살을 앓고 있는 듯합니다. 인도도 현재 약 4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의료체계가 취약한 인도로서는 이런 질병에 속수무책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모든 항공기는 물론이요, 기차, 시외버스까지 중단 시켰고, 주민들을 강력하게 통제하여 나가 다니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거둬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발견하며, 겸손히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재난이라도 하나님의 선교를 방해하지 못하리라는 믿음으로 오늘의 선교를 진행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1. 차티스가르 어메이징 그레이스 신학교 강의 및 장학금 전달 사역**

차티스가르 어메이징 그레이스 신학교는 미 자립 교회의 목회자 자녀들이 주로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전액 장학금이 아니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없기에 학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45명의 신학

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으며, 8명의 교수진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일 3번의 경건회(오전 5시, 10:30, 오후 6:30)와 매일 성경 읽기와 묵상으로 영성을 고양하며, 기도회를 통해 미래의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 나갈랜드 어메이징 그레이스 신학교 강의 및 신학교 조경 사역**

조범연 선교사는 나갈랜드 어메이징 그레이스 신학교의 조경 사역을 하여 학교를 아름답게 만들고, 강의와 설교를 통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3. 차티스가르 어메이징 그레이스 신학교 제6회 졸업식**

지난 3월 21일에 제6회 신학교 졸업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이번에 총 14명이 3년간의 과정을 마치고 졸업을 하였습니다. 이들이 신학교에서 공부를 마친 후에는 각자 섬기는 교회에서 어린이부나 청년사역을 맡아서 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본인의 가정에서 어린이 사역을 개척하거나, 가정 심방을 통해 부녀자·여성 선교를 하기도 합니다. 이들이 사역지에서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4. 뿌네 UBS 신학교 졸업식**

뿌네의 UBS 신학교에서도 졸업식을 거행하여 총 120명의 신학생들이 각자의 과정에서 졸업을 하였습니다. 졸업식을 전후해서 신학생들과 식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르친 8명의 선교학과 대학원생들은 각자 다른 중소 신학교에 교수로 부임합니다. 이렇게 든든하게 성장하여 열심히 사역하는 제자들을 보는 것은 제 사역의 가장 기쁜 순간입니다.



**5. 교회 건축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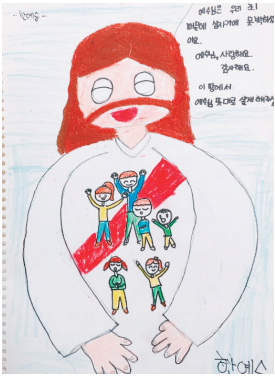
현재 인도에서 15곳의 교회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자재를 파는 가게들이 문을 닫기도 하고, 필요한 때에 일꾼들이 나오질 않아서 마무리 공사를 하지 못하는 중입니다. 그래도 4월에는 교회 건축이 완성될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6.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인도의 상황**

바이러스는 인도 전역을 공포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인도 국민들도 정부의 방역대책을 신뢰하지 않기에 무조건 외출 금지 내지는 꼭 필요한 생필품 가게도 2m 간격으로 줄을 서서 물건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세상은 요동치고 난리에 난리가 난 모습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사역자를 양성해서 이들을 파송해야 하고, 전도된 자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교회를 개척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은 더 확고해져 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깊은 마음으로 감사드리며...

조범연·김희정 선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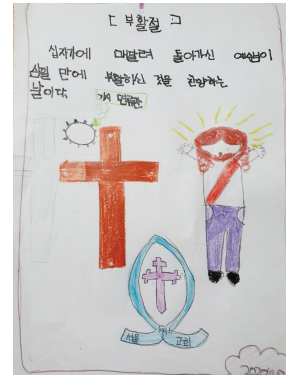
한예수 (유·초등부)



조건우 (유·초등부)



김은준 (유·초등부)



유서연 (유·초등부)



김하준 (유·초등부)



조연우2 (유·초등부)



한세아 (유·초등부)



우정균 (유·초등부)



김종혁 (유·초등부)



김보민 (유·초등부) 부활절 계란 만들었어요!



김태한 (유·초등부) 부활절 계란입니다.

동정

■ 이종운 원로목사는 4.13(월) 예비역 기독교 선교회 강남지회 여호수아회 부활절 감사예배에서 설교한다.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소식을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2.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우리나라와 온 세계의 감염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퇴치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될 수 있도록
3. 우리 교회의 모든 송사를 주장하여 주셔서, 교회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4. 국가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4.15 국회의원 선거를 통하여 나라와 국민을 바르게 섬길 지도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전교인 성경읽기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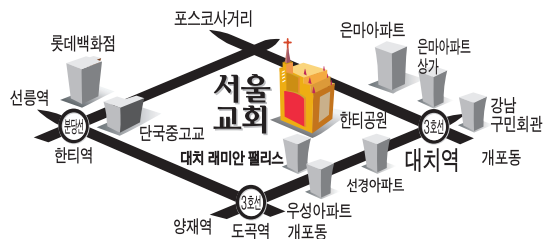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딤후 3:15)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4월13일	월	왕상 3-4		전 1-12	
4월14일	화	왕상 5-7		아 1-8	
4월15일	수	왕상 8-9		사 1-7	
4월16일	목	왕상 10-11		사 8-16	
4월17일	금	왕상 12-13		사 17-28	
4월18일	토	왕상 14-16		사 29-36	
4월19일	주일	왕상 17-18		사 37-43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토)	본당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